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을 전하며 이와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강의 왕❗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어두운 곳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는 어린이 크리스마스와 이와키 시민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매년 12월 첫번째 주일에 어린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시간 착오로 방과후 아이들에게 전단지를 한장도 나누어주지 못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올수 있을까 염려하였는데 놀랍게도 28명이 참가 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8월 영어 캠프에 참가했던 아이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올 여름 영어캠프가 끝나고 바로 영어 교실이 개설 되었는데 영어캠프에 참가했던 아이들중 11명이 영어교실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영어교실은 2주에 한번씩 목요일마다 3시~5:30까지 영어를 배우고 마지막 15분은 마스이 목사님과 리카코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성경말씀을 계속해서 전할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2월 두번째 토요일에는 이와키 시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시민 콘서트는 56년째 이와키시의 모든 교회와 카톨릭과 연합하여 믿지않는 사람들에게 콘서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연한 홋카이도의 4인조 보컬이 폭설로 비행기가 모두 결항되었는데 유일하게 후쿠시마편만 운행이 되어 콘서트에 올수 있었다고 간증을 할때에 모두가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쳤습니다.
후쿠시마는 14년전의 쓰나미로 인하여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 여전히 상흔과 아픔이 남아 있어서 작은 일에도 감동이 큽니다. 올해에도 믿지않는 탁구 동호회 멤버들과 콘서트에 갔는데 함께 참석했던 분이 다른 친구를 데려와 감사했습니다. 콘서트의 내용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올해는 특히 간증과 캐롤이 많아서 같이 온 친구들이 거부감이 들지않을까 염려스러웠는데 콘서트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모두다 너무나 좋았다고 말하여 그또한 감사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호코리카페는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중년의 남성분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호코리카페 베너를 보고 카페를 방문하셨다

가 주일예배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대인 관계의 어려움과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매주 호코리 카페와 주일 예배에 참석하며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울한 마음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웃으시고 쾌활하게 먼저 인사도 하십니다. 또한 장애인가족 지원모임에도 참석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분들을 위로하며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서로 나눔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되어 갑니다.

설레이며 기다리며 맞이한 성탄절 예배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제가 이와키교회에 온 이후 성탄 예배중 가장 많은 미신자 분들이(51명) 참석했습니다. 8월의 영어캠프에 왔었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전혀 모르다가 영어캠프에 참가하여 어렴풋이나마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의 다양한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며 좋은 일들을 보며 신뢰감을 쌓아가면서 굳은 마음도 녹아져 성탄절 예배에도 함께 드릴 수 있을만큼 마음도 움직이며 열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8월의 영어 캠프❗ 그 뜨겁고 가슴 벅찬 감격과 은혜의 시간들❗
그 기적같은 시간들로 인하여 너무도 귀한 영혼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선교 팀원들, 그리고 일본 선교와 이와키교회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한분 한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로 인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움과 부족함이 많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그 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렵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저의 선교여정에 베풀어주신 따뜻한 사랑과 귀한 섬김과 기도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마음 든든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고맙고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가슴이 뛰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 하시길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함께 기도해주세요~

1. ANC 온누리교회와 이와키교회의 선교 협력이 순조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영어캠프가 개최되어 어린이 복음 전도의 기회와 통로로 씌임 받을 수 있도록

2. 가정교회, 호코리카페, 치료사역과 교회의 모임(훌라, 우쿨렐레, 프랑스자수교실)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진리를 알아가며 주님을 만나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3. 2/28 만두파티 행사와, 4/9 떡갈비와 순두부 요리교실과 ,카네야마 공민관의 7/6, 7/26 요리교실을 통하여 복음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4. 선교의 동역자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선교의 동역과 사역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선교가 되도록

5. 영어교실의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즐겁게 영어를 배우고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6. 가정교회의 나카노 마리상의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도록
   가정교회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리사코상, 하루상, 아키코상, 마리상)

7.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맡겨 주신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후쿠시마 이와키에서 김 미숙 올림 ☃️🎄🎉